

다네. 그만큼 일에 열성을 다했지. 그는 마르그리트에게 굉장히 충실했고, 라 투르 부인에게도, 또 비르지니가 태어날 무렵 자신과 결혼한 그 맥 흑인 여종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충실함을 보였네. 마리라는 이름의 아내를 그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어. 마다가스카르에서 태어난 마리는 거기서 몇 가지 생업에 필요한 재주를 익혀 왔고, 그중에서도 숲에서 자라는 풀을 엮어 파뉴라 불리는 바구니나 옷감을 짓는 재주가 돋보였다네. 솜씨도 좋고 청결했으며 아주 충직했지. 그녀는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고, 몇 마리 닭을 길렀으며, 가끔은 포르투이에 가서 두 농가에서 나온 여분의 곡식을 팔았네. 그리 대단한 양은 아니었지만 말이야. 여기에 애들 가까이에서 기르던 염소 두 마리와 집밖에서 밤을 지새우던 덩치 큰 개를 더하면, 자네도 이 두 집안의 작은 소작지에서 나는 소출이며 가축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갈 걸세.

친구가 된 우리 두 여인으로 말하자면, 그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화로 실을 잣았네. 이 일은 두 사람뿐 아니라 양쪽 가족 전체의 생계유지에도 충분한 수준이었지.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외지에서 들여온 편의품이 너무 없다시피 해서, 농지에서는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, 일요일 아침 일찍 저 아래 보이는 왕굴나무 성당에 미사를 보러 갈 때만 신발을 신었다네. 아무래도 포르투이로 가는 것보다야 훨씬 더 거리가 있지만, 두 여인은 거기 가서 멸시를 받을까봐